

석화업계, 조달 리스크 분산 총력 에탄·해외투자·설비통합 동시 추진

납사 부담 커지며 에탄 도입 본격화
동남아 신규 단지로 생산 기반 확충
국내선 수소·재활용 중심 체질 전환
대산 설비 조정 등 재편 논의 확산

석유화학 업계가 구조조정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공급망 불안과 가격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는 조달 리스크 분산과 사업 구조 다각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납사 중심 원료 구조가 한계에 직면하면서 원료 조달 다변화, 해외 생산거점 확보, 공정 효율화 등 기업별 전략 조정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SK지오센트릭은 최근 SK가스과 협력해 납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에탄 도입을 본격화하며 원가 구조 개선에 나서고 있다. 에탄은 납사 대비 가격 변동성이 낮아 조달 리스크를 줄이고 공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평가로, SK지오센트릭은 이를 기반으로 에탄 적용 확대와 NCC 경쟁력 강화 방향을 구체화하고 있다.

해외투자 흐름도 이어지고 있다. GS칼텍스는 포스코인터내셔널과 함께 인도네시아 발릭파판에 약 2600억원을 투자한 팜유 정제시설을 완공해 가동 단계에 진입했다. 이 시설은 팜 원유(CPO)를 정제해 바이오디젤 원료와 식용유 등을 생산할 예정으로 연간 약 50만 톤의 정제 능력을 갖췄다. 생산된 팜 정제유는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한국·중국 등 인근 국가로 공급될 예정이다.

GS칼텍스와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이를 통해 원료 확보부터 생산·판매까지 이어지는 바이오디젤 밸류체인을 평가 받고 있다.



롯데케미칼 여수공장.

/롯데케미칼

롯데케미칼도 해외 공급 기반 강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질레근 지역에서 5조7000억원을 투입한 '라인(LINE) 프로젝트'가 이달 상업 가동에 들어가며 동남아 수요 증가에 대응할 대규모 생산 거점을 마련했다. 해당 단지는 에틸렌 100만톤, 프로필렌 52만톤, 폴리 프로필렌 35만톤, 부타디엔 14만톤, 벤젠·톨루엔·자일렌(BTX) 40만톤 등 주요 제품을 생산한다. 현재는 초기 안정화 단계여서 단기적 실적 기여는 크지 않지만 중장기적으로 인도네시아 내수 시장 중심의 안정적 수익이 기대된다.

롯데케미칼은 국내에서도 신사업·고부가 소재 중심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 11일 대산 수소출하센터가 상업 가동을 시작해 수도권 포함 중부 지역에 고압 수소 공급을 개시했으며, 울산에서는 페PET 화학적 재활용 사업을 추진 중이다. 여수에서는 첨단소재 컴파운드 공장을 통해 고내열·난연 폴리 카보네이트(PC), 난연·투명 고부가합성수지(ABS) 등 고부가 소재 생산을

확대하며 포트폴리오 전환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석유화학 구조조정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은 충남 서산시 대산석유화학단지의 석화 설비를 통폐합하는 내용의 사업재편안을 놓고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논의는 여수·울산 등 주요 단지로도 확산돼 기업별 효율화 방안 검토를 가속하는 흐름을 만들고 있다. LG화학과 GS칼텍스도 설비 통합, 생산량 조정 등을 포함한 구조 효율화 방안을 외부 컨설팅을 통해 검토 중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산산단에서 진행 중인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의 재편 작업이 먼저 윤곽이 잡히면 다른 기업들의 판단에도 선례로 작용할 수 있다"며 "조안 제철 일정이 진척된 만큼 이번 사례가 업계 전반의 구조조정 속도와 방향을 가늠하는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제네시스, 美 ‘최고의 럭셔리 브랜드’ 선정

US뉴스, 39개 브랜드 평가 1위
G90·G80·GV70 동급 최고 성적
“10년간 프리미엄 경쟁력 증명”

제네시스 브랜드(이하 제네시스)가 럭셔리 브랜드로서의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제네시스는 미국 유력 매체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로부터 '2026년 최고의 럭셔리 자동차 브랜드'에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는 지난 20일(현지시간) 2026년 최고의 자동차 브랜드 어워즈의 럭셔리, SUV, 승용, 트럭, 전동화, 럭셔리 전동화 등 총 6개 부문별 수상 브랜드를 발표했다.

올해는 39개 자동차 브랜드가 판매하는 전체 차량을 대상으로 안전성 평가, 신뢰도 데이터 분석, 자동차 전문 매체의 종합 의견 등을 반영해 평균 점수를

산출하고, 각 부문별 최고점을 받은 브랜드에 시상했다.

제네시스는 뛰어난 품질과 안전, 세련된 디자인과 편의 기능에 더해 가격 경쟁력까지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나란히 최종 후보에 오른 포르쉐를 제치고 '최고의 럭셔리 자동차 브랜드'란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특히 제네시스 대형 세단 'G90' 종합 점수는 10점 만점에 9.6점을 기록해 '거의 완벽한 럭셔리 대형 세단'이란 찬사를 받았다. 준대형 세단 'G80'과 중형 SUV 'GV70'도 동급 최고 순위를 차지해 이번 수상을 견인했다.

알렉스 크윈텐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 편집장은 "제네시스는 지난 10년간 세계적인 수준의 차량과 프리미엄 고객 경험을 꾸준히 선보였다"고 평가했다.

/양성운 기자 ysw@

HD현대, 美 안두릴과 ASV 공동개발

설계·건조·AI 통합 추진
울산서 시제함 내년 완성

HD현대가 미국 인공지능(AI) 방산기업 안두릴 인더스트리와 손잡고 자율무인수상함(ASV)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HD현대는 최근 안두릴과 자율무인수상함의 설계·건조 및 AI 솔루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HD현대는 ASV를 HD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에서 건조하고, 현재 개발 중인 선박 자율운항 기술 등 핵심 AI 솔루션을 공급할 계획이다. 안두릴은 자율무인수행 솔루션을 탑재한다. 양사는 내년까지 ASV 시제함 개발과 건조를 마치고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 선점에 본격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기선 HD현대 회장은 지난 10월 열린 CEO 서밋 퓨처테크포럼 기조연설에서 "최근 AI 방산 분야의 혁신 리더로 급부상하고 있는 미국 안두릴과 파트너십을 체결했으며, 최신 자율운항 기술을 방산 분야로 확장해 차세대 무인 함정을 개발 중"이라며 "양사의 역량이 결

집된 선박 자율운항 기술과 자율임무수행 기술이 융합되면 해군 작전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 시장조사기관 얼라이드마켓 리서치에 따르면 세계 무인수상정 시장은 지난 2022년 9억2000만달러에서 연평균 11.5% 성장해 오는 2032년 27억달러 규모에 이를 전망이다.

주원호 HD현대중공업 사장은 "한국과 미국 방산업체가 협력해 함정을 공동 개발하는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AI 방산 기업과 세계 최고 조선소가 협력해 전 세계 해군이 추진하고 있는 유무인 복합체계 도입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팔머 러키 안두릴 공동설립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설계·건조 역량을 갖춘 HD현대 울산 야드에서 우리의 첫 ASV를 건조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HD현대와의 더 큰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혜운 기자 dhahledhale@

LG, 두바이 스마트시티에 AI솔루션 공급

UAE 엑스포시티와 전략 파트너십
HVAC·AI홈브로 인프라 등 확대
네옴 데이터센터 협력… 중동 B2G ↑

LG전자가 중동에서 B2G(기업·정부간) 사업을 확대하며 글로벌 사우스 시장에서 공간·인프라 중심의 성장을 가속하고 있다.

LG전자는 19일 두바이에서 아랍에미리트(UAE) 정부 산하 기관 '엑스포시티 두바이'와 스마트시티 건설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력은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 순방행사로 열린 한-UAE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논의된 인공지능(AI) 기술·에너지 인프라 협력 확대의 연장선이다.

엑스포시티 두바이는 2020 두바이 엑스포 부지에 약 3만5000명이 거주하는 3.5km² 규모 스마트시티를 조성 중이다. UAE 정부가 추진하는 'We the UAE 2031' 비전 아래 AI·신재생에너지 기반의 지속가능 도시, 탄소중립, 고효율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LG전자는 공간을 서비스로 제공하는



지난 19일 UAE 두바이에서 엑스포시티 두바이 아흐메드 알 카티브 개발 및 공급 책임자(왼쪽)와 LG전자 조주완 CEO가 악수하고 있는 모습.

/LG전자

'공간 패키지 사업자로서 첨단 HVAC 솔루션과 AI홈 허브 기반의 스마트홈 솔루션 공급을 추진한다.

LG전자는 앞서 두바이 엑스포에 고휘도 발광 다이오드(LED) 사이니지를 공급한 데 이어, 엑스포시티 내 3000세대 규모 주거 단지에 빌트인 가전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를 기반으로 중동에서 B2C·B2B·B2G 전 영역을 아우르는 사업 확장을 이어가고 있다.

UAE뿐 아니라 사우디에서도 사업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LG전자는 지난 9월 사우디 네옴시티 내 옥사곤에 건설되는 '넷제로 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에서 냉각 솔루션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현지 전력회사 아쿠아파워, 유통기업 셰이커 그룹, 데이터 인프라기업 데이터볼트와의 협력을 통해 차세대 데이터센터 구축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LG전자는 사우디에서 1995년 셰이커 그룹과 파트너십을 맺고 2006년 합작 법인을 설립하는 등 30년 가까이 현지에서 사업 기반을 강화해왔다. 최근에는 정부 주도 프로젝트 참여를 확대하며 B2G 사업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35% 수준인 B2B 매출 비중을 2030년까지 45%로 높일 계획이다.

LG전자 조주완 CEO는 "LG전자의 차별화된 HVAC 기술력과 AI홈 허브 기반 스마트홈 솔루션은 UAE 정부의 미래 비전 실현에 기여할 것이다"라며 "국가 주도 프로젝트가 많은 중동 지역에서 신규 B2G 사업기회 확보에 속도를 내겠다"라고 말했다.

/정희준 기자 nauta@

삼성 '비스포크 AI 콤보', 美 매체 호평

올인원 콤보 분야 2년 연속 1위 선정

삼성전자가 미국 시장에 선보인 일체형 세탁건조기 '비스포크 AI 콤보'가 현지 유력 매체들로부터 잇따라 호평을 받으며 제품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올해 4월 미국에 출시한 벤트 타입 '비스포크 AI 콤보'가 최근 미국 주요 전문 매체 평가에서 뛰어난 성능을 인정받았다고 23일 밝혔다. 벤트 방식은 뜨거운 공기로 옷을 건조한 뒤 외부로 배기하는 구조로 건조속도가 빠른 것이 특징이며, 미국 주택 구조와 선호도에 최적화된 방식이다.

전자제품 평가 전문지 '트러스티드 리뷰'는 이달 중순 체험 리뷰를 통해 해당 제품을 '완벽한 세탁·건조가 가능한 환상적인 세탁건조기'라고 평가했다. 사용 편의성과 강력한 세탁·건조 성능

을 모두 갖췄으며 기존 단독 세탁기·벤트 타입 건조기를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소개했다. 특히 건조 종료 후 자동으로 문이 열리는 '오토오픈 도어' 기능이 실사용 편의성을 높인다고 강조했다. 스마트싱스 기반 자동화 기능과 직관적인 조작 방식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 받았다.

가전 전문매체 '굿하우스키퍼'도 비스포크 AI 콤보 벤트 타입 제품의 테스트 결과를 공개하며 뛰어난 얼룩제거력과 1시간 이내 완전 건조 성능을 높이 평가했다. 공간·시간 활용도가 높은 설계, 벤트 방식 특유의 빠른 건조 시간도 강점으로 꼽았다. ▲세탁물에 맞춘 최적 코스를 제공하는 'AI 맞춤 코스' 등 사용자 경험을 강화한 기능들도 경쟁력으로 언급했다.

/정희준 기자